

가이드북

미래의 과학소설

제10회
한낙원
과학소설상
작품집

사계절

© 테히



제10회 한나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시간 속의 너에게

김문경, 정교영, 이새벽, 별민영, 김미연 글 · 테히 그림

시간이 변해도 마음 곁에 영원히 흐를 이야기

오염된 지구를 정화하는 일을 위해 기계에서 만들어진 아이 혜성. 유일한 친구인 은하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프록시마 행성으로 떠나고, 우주선 안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탓에 둘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게 된다. 엇갈린 시간 속에서도 끝내 서로와의 약속을 지킨 혜성과 은하의 마음을 담은 대상 수상작 「시간 속의 너에게」와 함께, 한계에 다다른 지구, 광활한 우주, 외계 생명체와의 갈등 등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빛날 이야기들을 모았다.

국어 교사가 바라본 「시간 속의 너에게」 (김문경 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김영희(대평고등학교 교사)

지연과 불편을 안고 이루어지는 만남

은하와의 만남을 통해 L24는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 은하가 L24에게 준 것은 만남의 경험이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지연과 불편이 수반되는 만남이다. L24가 은하에게 마음을 연 계기는 은하가 다친 그를 한 시간이나 기다려 “괜찮니…….”라는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L24가 매 주말 은하의 집에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집에 있는 종이책이 좋아서였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다.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즉각 뜨는 전자 섬유 대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며 자료를 탐색해야 하는 종이책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설정은 L24와 은하가 맺는 관계의 특성을 상징한다. 프록시마로 떠난 (실은 떠났다고 여겨지는) 은하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2년에 한번, 한참을 기다려야 찾아온다.

이 작품이 갖는 의미 중 하나는 원하는 바를 지금, 이곳에서 즉각 손에 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다. L24와 은하의 삶을 바꾸는 우정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속성인 지연과 불편을 끌어안은 덕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좋은 것’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을 빠른 속도와 편리함으로 삼는 시대를 사는 청소년 독자들에게 그 반대의 속성이 갖는 가치를 듣는 경험은 무척 귀하다.

은하를 은하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망가져 가는 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록시마 행성에서 기계 장기를 이식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은하는 프록시마행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갑자기 폐가 굳어 세상을 떠난 엄마의 사례를 알고 있음에도 은하는 “몸이 전부 기계가 된다면 그건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L24와 마찬가지로 생존보다도 자신답게 사는 삶에 큰 가치를 두는 인물이다.

은하의 판단을 아날로그 지향형 인간의 아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그래서 L24가 아닌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 준 혜성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파 신호를 택했다는 점에 있다. 인간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다 생을 마감하는 보호소 아이의 운명을 타고난 혜성이 주어진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살도록 응원하는 말들을 ‘극도의 기술력’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발송했다는 설정은, 은하의 지향이 단순히 기계화에 대한 저항과 반감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은하가 내놓은 해답은 다른 존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이 나다운 나라는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도 공들여 영상 편지를 만들고 혜성에게 띄울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이 아니다. 은하는 그가 바라던 대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은하의 삶과 죽음은 독자에게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목직한 질문을 던진다. 은하가 보인 ‘축복’의 수혜를 입은 존재가 (작품 속 다른 인간들의 시선에서는) 비인간인 L24라는 사실 또한 곱씹어야 할 지점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경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깨달음을 함께 얻을 수 있다.

김영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에서 학생들과 책을 읽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부하고 있다.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2』,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을 함께 썼다. 책의 힘, 우정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

「시간 속의 너에게」

독서 후 질문

- ① 은하를 만나기 전까지 혜성이 반항심과 분노를 품고 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혜성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 ② 혜성이 은하에게 마음을 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③ 은하는 왜 혜성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까?
- ④ 은하를 만나 혜성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 ⑤ 혜성을 만나 은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 ⑥ 혜성이 종이책을 좋아한다는 설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 ⑦ 현실 사회에서 보호소 아이들과 같이 '도구로 여겨지는 존재들'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가?
- ⑧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자.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면 책이나 방송을 통해 접한 내용도 좋다.
- ⑨ 은하는 왜 프록시마에 가는 일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 ⑩ 은하의 영향을 받아 삶이 바뀐 혜성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의 미래를 상상한 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자. 이때 각자 만들어 낸 이야기 속에는
'은하의 흔적'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국어 교사가 바라본 「영원이 손을 내밀 때」 (김문경 글) 작가의 특성을 탐색하며 책을 읽는 즐거움



김영희(대평고등학교 교사)

「영원이 손을 내밀 때」는 제10회 한낙원과학소설상 대상 수상작 「시간 속의 너에게」 김문경 작가의 신작이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두 소설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탐색하며 읽는 것은 흥미로운 독서법이 될 수 있다. 한 명의 작가가 쓴 작품 여러 편을 읽고 그의 지향과 특성을 도출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경험이다. 김문경 작가의 작품을 찬찬히 살피는 체험이 청소년 독자에게 좋아하는 작가, 기대되는 작가를 가슴에 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같은 작가의 닮은 듯하지만 다른 변주를 발견하는 즐거움

두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시간 속의 너에게」 은하와 기계에서 만들어진 인간인 혜성, 「영원이 손을 내밀 때」 영원과 영혼인 은조)의 경계 없는 우정을 그린다. 「시간 속의 너에게」와 「영원이 손을 내밀 때」 모두 인간을 향한 비인간의 도움이 우정의 계기가 된다. 이는 '비인간은 인간보다 열등하다.', '비인간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을 비트는 설정이다. 작가는 통념을 역전할 수 있는 설정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 속의 너에게」보다 최근에 쓰인 작품 「영원이 손을 내밀 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영원을 구하는 존재가 영혼인 은조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비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며 작품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던 소년은 바닥에 놓인 작은 회로 기판 하나를 들었다. 소년은 아무 표정 없이 각진 모서리를 손목에 가져다 댔다. 그때였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46쪽)

「시간 속의 너에게」와 「영원이 손을 내밀 때」 모두 인간이 비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며 결말지어진다. 이 지점에서도 닮은 듯 다른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속의 너에게」에서 그려진 인간-비인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구원자-수혜자의 구도에 가까웠다면, 「영원이 손을 내밀 때」에서는 두 존재가 협력 관계를 이룬다. 은조에게 인간의 몸을 주기 위해 영원이 풀어야 하는 난제인 ‘차원을 잇는 통로’는 은조가 준 힌트에 착안해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었다. 이 변화에서 김문경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비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느끼기엔 영혼 대화 장치 안에 있는 작은 셋조각에서 에너지가 뿔어 나오는 거 같아.” (62쪽)

과학소설에 아날로그의 물성을 담아내는 작가

두 작품에는 모두 물성 지닌 사물들이 그려진다. 「시간 속의 너에게」에는 전자책 대신 굳이 종이책을 찾아 읽는 혜성이, 「영원이 손을 내밀 때」에는 신경 장치로 맛을 느끼는 미래 시대에 쉽게 찾을 수 없게 된 초콜릿을 구해 은조에게 건네는 영원이 등장한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외계 행성으로 갈 수 있고, 차원을 잇는 기술이 등장해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시기를 배경 삼아 소설을 쓰면서도 작가가 “부드러우면서도 뽀뽀한 촉감, “달콤함을 타고 입안에 퍼지는 톱툰한 향과 목덜미까지 싸하게 만드는 진한 맛”으로 표상되는 물성 가득한 사물을 지속적으로 작품에 담아내는 이유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품어야 하는 ‘오래된 가치’가 분명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영원이 손을 내밀 때」

독서 후 질문

- ① 영원에게 은조는 어떤 의미였을까?
- ② 영원이 인생을 걸고 은조에게 신체를 주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③ 영원의 유전적 아버지인 박사의 존재는 무엇을 상징할까?
- ④ 이 작품에서 초콜릿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⑤ 작품에는 인간의 영생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이 등장한다.
이 소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자.
- ⑥ 위 글에서 제시되지 않은 「시간 속의 너에게」와 「영원이 손을 내밀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 ⑦ 한 명의 작가가 쓴 글 여러 편을 읽고 비교해 보는 경험은 어땠는가?
친구들과 소감을 나누어 보자.
- ⑧ 김문경 작가의 작품 특성을 바탕으로 좋은 과학소설이 담아내야 하는 이야기를 떠올려 정리해 보자.
- ⑨ 인간과 비인간이 맺어야 하는 관계를 그리는 다른 작품들을 찾아본 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자.
- ⑩ 과학 기술의 발전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쓸모없음과 괴물적 사고에 대항하기



윤재오(내면고등학교 교사)

혹시 스테고사우루스를 모른다면 검색해 보고 이 소설을 읽어 보자. 엄마가 사포로 딸의 등을 힘껏 미는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소연은 등에 뿔이 네 개나 자라는데 뿔이 다 자라면 이상한 푸른빛도 난다. 등에 뿔이 있는 이유는 소연이 P라는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등에 난 뿔을 밀어 주자 소연은 용기를 내어 수영장에 간다.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수영장에서 갑자기 뿔이 자라면서 푸른빛을 낸다. 소연은 친구들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세진, 예은에게 들켜고 만다. 수영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까닭은 소연의 엄마와 같은 종족인 P가 지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P의 뿔에서는 다른 종족의 생각을 조종하는 푸른빛 물질이 나온다. P는 푸른빛을 내뿜으며 자기 마음대로 지구인을 조종하는데, 소연은 자신의 뿔을 사용해 이 작전을 방해하면서 지구인을 구한다.

이 소설의 매력 중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여자라는 데 있다. 보통 공룡은 남자아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지만, 소연, 세진, 예은은 각각 스테고사우루스, 콤프소그나투스, 티라노사우루스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니며 이것은 강력한 우정의 증거로 기능한다.

좋은 SF가 가져야 하는 미덕이 현실을 보게 하는 눈이라면 「스테고사우루스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흐릿한 눈을 번쩍 뜨게 한다. 세진과 예은은 소연의 등에 달린 뿔을 본 이후에도 소연의 곁을 지키지만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세진은 혼란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 “난 솔직히 이상해.”라고 말하자 예은이 “하지만 어쨌겠어? 이상한 친구가 생긴 거지 그냥.”이라고 응수한다. 이런 태도에 소연은 자신이 이들과 계속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용기를 낸다. 소연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뿔에 관한 비밀을 폭로할 기회를 찾으며, 끝내는 평범함의 실체 없음을 고발한다.

또한 뿔이 없이 태어난 소연의 엄마가 쓸모없다는 이유로 P 종족에게 버림받는 사건은 우리에게 기시감을 들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용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가 막히도록 섬뜩한 장면은 P가 푸른빛을 내며 지구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장면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조종하는 P는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에 뿔이 보이는 것보다 흐릿한 눈빛이 보이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이 정체성의 경계에 있는 소연처럼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지 않고 혼란스러워진다면 이 소설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윤재오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에서 배우는 자로 살고 있다. 『챗GPT 국어 수업』을 함께 썼다. 되면 좋고, 아님 말고의 마음으로 모험하며 사는 사람.

「스테고사우루스병」

독서 후 질문

- ❶ 평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 ❷ 소연의 등에서 자라는 빨처럼 남들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나의 이상함이 있는가?
- ❸ 소연은 어쩌서 친구들에게 비밀을 들켜 버리고 싶었을까?
- ❹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에 가닿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❺ 우리 사회에서 소연의 엄마처럼 쓸모에 따라 차별당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 ❻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부분을 틀린 것으로 인식했던 적은 없는가?
- ❼ 소연은 사람들을 내 멋대로 조종하는 일은 괴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괴물 같은 일은 무엇인가?
- ❽ 소연은 왜 지구인과 외계인의 경계에 있는 인물로 설정되었을까?
- ❾ 소연의 약점이었던 빨은 P에게서 사람들을 구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소연처럼 약점이 장점으로 보완되었던 경험이 있는가?
- ❿ 내가 만약 세진이나 예은이었다면 소연의 처지를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국어 교사가 바라본 「영의 자리」 (이새벽 글)

온기,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윤재오(내면고등학교 교사)

「영의 자리」는 SF일까, 리얼리즘일까? 리얼리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기계를 이용한 돌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아동 돌봄 안드로이드인 도아 언니를 형제처럼 의지하며 자란다. 0세부터 14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안드로이드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도아 언니는 생김새 또한 수아의 부모님을 닮았는데, 수아의 열네 살 생일이 되던 날 그의 곁을 떠난다. 오래오래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고서.

도아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수아는 그리운 도아 언니를 만나러 실버타운에 간다. 도아는 아동 돌봄 안드로이드로서 쓸모를 다한 후 곧바로 폐기되지 않고 초기화된 다음, 노인을 돌보는 역할로 바뀌었다. 수아는 김미영 할머니의 손녀인 은서로 살고 있는 도아 언니와 재회하는데, 기억이 사라진 언니는 수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수아는 언니가 할머니를 마사지할 때 부드럽고 섬세하게 쓰다듬는 손길을 본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감각하고 있는 따뜻함을 떠올린다. 머리카락을 파고들며 간지럽히던 손길, 천천히 찾아오던 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수아와 김미영 할머니는 자신을 데워 주는 온기가 그림다. 수아의 “인간적이지 않은 기억은 뭔데?”라는 물음에 도아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수아와 할머니를 향한 안드로이드의 돌봄을 인간적이지 않은 온기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지금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인간이 수행하던 역할의 많은 부분을 인공 지능 로봇이 해낼 것이다. 인간이 인간적인 돌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영의 자리』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 그것이 이 세계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영의 자리」

독서 후 질문

- ❶ 내가 만약 수아라면 도아가 사라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 ❷ 내가 만약 양육자라면 아동 돌봄 안드로이드 지원 정책을 이용할까?
- ❸ 돌봄 안드로이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노인 돌봄 문제가 해결될까?
- ❹ 안드로이드는 단지 안드로이드일 뿐일까?
인간을 향한 안드로이드의 마음은 진짜일까?
- ❺ 관계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❻ 작가는 왜 안드로이드를 초기화하여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설정을 했을까?
- ❼ 제목인 ‘영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 ❽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깨닫지 않고 아는 것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 ❾ 도아와 은서처럼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던 존재는 누구인가?
- ❿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사회가 진화한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어 교사가 바라본 「소년들, 소년들이」 (별민영 글)

보이지 않는 소년들



조인혜(능곡고등학교 교사)

22세기 지구에서는 폐기된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쓰레기가 인류에 큰 위협이 된다. 이를 처리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사람이 직접 우주선을 조종해서 처리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까딱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이 일을 하는 업체인 가디언8은 부모를 잃거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소년들을 채용하여 우주 쓰레기 수거를 맡긴다. 가디언8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년들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지구에서도 사람들은 안전한 하늘 아래 보내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소설은 이러한 가디언8에서 함께 일하는 청우와 윤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소설을 읽다 보면 기댈 곳 없는 소년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는 가디언8에 대해, 소년들의 생명보다는 사람들에게 업체의 존재가 알려질까 걱정하는 관리자 최 씨에게, 목숨을 걸고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늘에 유성쇼가 펼쳐졌다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우와 윤도가, 가디언8이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이미 우리의 주변에, 현실에 이들은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는 한다. 인간을 인간 그 자체인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자 도구로 대하고, 거기서 인간 소외가 시작된다. 무모하고 보호자가 없고 돈이 없는 소년들을 가디언8이 채용하는 이유도 소년들을 효율적인 도구로 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원하는 이들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청우와 윤도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맡아 하던 윤도가 폐기된 인공위성을 지구 대기권으로 날려 보내 유성쇼와 같은 광경을 만들며 은퇴하고 싶어 한 이유는 하늘을 지키는 자신들의 존재를 한 번은 알리고 싶었던, 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자본주의’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안에서 여전히 한 명의 인간보다는 집단, 권력, 구조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침해받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산업 재해 피해 노동자, 특성화고 현장 실습 청소년, 장애인, 비인간 동물 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곳에 청우와 윤도가 있다.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남고 싶어 했던 청우와 자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던 윤도를 주변의 현실에서 찾아보는 것은 소설을 넓고 깊게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조인혜

세상이 좀 더 많은 존재에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은 국어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고방’에서 활동하며, 사계절출판사의 청소년문학 콘텐츠 ‘호호책방’과 중등 독서평설의 ‘소설을 읽는 시선’에 참여하고 있다.

「소년들, 소년들이」

독서 후 질문

- ① 제목인 '소년들, 소년들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 ② 소설 속 내용이나 설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청우와 윤도가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가진 생각과 태도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두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에게 공감이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청우와 윤도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 ⑤ 윤도와 청우를 비롯하여 가디언8의 소년들이 받는 대우는 정당한가?
- ⑥ 가디언8과 같이 사람을 비인간화하거나 도구화하는 현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⑦ 가디언8과 같은 현실 속 사례에 대해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무관심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사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⑧ 윤도에게 은퇴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윤도가 그물 미션에 성공하고 지구로 폐기 인공위성을 날려 보내는
은퇴식을 하게 되었다면 작품의 결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 ⑨ 청우는 왜 우주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 ⑩ 내가 청우라면 윤도의 실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어 교사가 바라본 「호르헤 행성의 음모」 (김미연 글)

호르헤 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



조인혜(능곡고등학교 교사)

‘호르헤’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수도사의 이름이다. 그는 다른 수도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담긴 지식을 퍼뜨릴 수 없도록 책장에 독을 발라서 책을 읽은 수도사들을 죽게 만든 이였다. 마지막에는 도서관이 불타게 만들고, 죽어 가면서도 그 책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던 인물. 그 인물의 이름을 딴 행성의 음모라니, 대체 호르헤 행성의 음모는 무엇일까?

물 부족에 직면한 호르헤 행성은 지구로 이주할 기술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야 했고, 그사이 지구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도록 도왔다. 행성인은 숨 쉴 때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므로 과학 발전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도록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과학 발전을 위해 그들이 처음에 했던 일은 지식과 지혜의 집인 도서관을 짓는 데 기여하는 것. 하지만 지구의 과학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 되레 자신들이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호르헤 행성은 과학 기술 발전을 늦추기 위해 도서관을 파괴하는 동시에 온난화는 지속시키기 위해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을 도왔다. 실제로 작품에 등장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온갖 사상과 인

류 문명, 과학의 집합체였으나 그 지식은 일부 기득권층만의 소유물이었고, 도서관 파괴를 기점으로 지식의 기록물도 모두 사라지며 서양의 중세는 천 년간 암흑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도서관 파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 인쇄술과 컴퓨터, 인터넷을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며 행성인이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결국 그들이 수정한 전략은 지구인이 지식과 지혜를 스스로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 그들은 어린 지구인에게 책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며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게 만들었고, 그 결과 도서관은 찾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호르헤 행성인의 음모를 통해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독서 인구 감소처럼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돌아보게 된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위기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점점 더 책과 도서관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호르헤 행성이 지구를 침공해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침공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지켜 내야 할 삶의 터전과 그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그것이 외계인의 침공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호르헤 행성인이 막으려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도서관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인쇄술과 인터넷의 발명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하며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SF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지구인들에게 이 작품은 책과 도서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다.

「호르헤 행성의 음모」

독서 후 질문

- ① ‘호르헤 행성의 음모’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
- ② 작품 속 호르헤 행성인과 『장미의 이름』의 수도사 호르헤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 ③ 호르헤 행성이 지구를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호르헤 행성인은 왜 지구의 과학 기술 발전을 도왔나?
- ④ 호르헤 행성인이 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주었던 “책보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에게 책보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 ⑤ 현실에서 호르헤 행성인과 같은 음모를 가진 세력이나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
왜 그런 음모를 가지고 꾸미고 있을까?
- ⑥ 작품을 통해 알게 된 책 읽기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 ⑦ M과 고은의 대화에서 고은이 깨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⑧ 도서관 최다 대출자였던 김병선 할아버지는 “지식을 얻으려 책을 읽었는데 점점 지혜를 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책이 지혜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 ⑨ 작품 결말 이후에서 고은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호르헤 행성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⑩ “외계인이라는 단어는 ‘비정상’이라는 의미로 오염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의 생각에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소년문학 유튜브 호호책방

청소년문학, 그 멋짐에 대하여

현직 국어 교사이자 열렬한 독자인 김영희, 윤재오, 조인혜 선생님이 청소년문학을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청소년문학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호호책방!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찾아옵니다. 청소년문학의 멋짐을 나누는 호호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사계절 청소년문학 유튜브 호호책방
한낙원과학소설상 수상작 편, 『시간 속의 너에게』 편 보기

